2007. 9. 17 제175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

2007. 9. 17 제175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베를린市의 '주거지 정비 프로그램'

도시경영·경제

1. 혁신기업 지원사업 개선계획 마련 (베를린)
2. 거리환경감시단(SCOUT) 발족 (뉴욕)
3. 수도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일본)
4. 공공예산 수립에 시민참여 활성화 (브라질 쿠리치바市)
5.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정보 제공 확대 (베를린)
6. 4대 금융지원서비스 특구 건설 계획 (북경)

복지·문화

7. 다문화주의 프로젝트 지원 계획 (베를린)
8. 온라인 '걷기교실' (런던)
9. 가정폭력 피해아동 보호 프로그램 실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10. 심각한 노숙자 문제 해결 위해 보조금 지원 (런던)

목 차

11. ‘템스 페스티벌’ 개최 (런던)

12.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실행전략 공모 (베를린)

13. ‘긴 박물관의 밤’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베를린)

14. ‘복지·보건의 신전개 2007’ 수립 (도쿄)

도시환경

15. 공공부문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국 서던캘리포니아州)

16. ‘동물 애호관리 추진계획’ 수립 (도쿄)

17. 하수처리 신기술 실용화 실험 (일본 가고시마縣)

18. 쓰레기 처리장에 환경감시측정시스템 설치 계획 (북경)

도시교통

19. 도심 무료 자전거 타기 축제 개최 (런던)

20. 제2차 ‘교차점 휙휙 플랜’ 수립 (도쿄)

도시계획·건설·주택

21. 수로주택 건설계획 마련 (영국 글래스고市)

방재·안전

22. 청색 방범 패트롤카 운영 (도쿄)

[벤치마킹 사례]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베를린市의 '주거지 정비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베를린市는 독일 통일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1995년에 종합적인 '주거지 정비 프로그램'(Stadterneuerungsprogramm)을 수립함.

- 주거지 정비 프로그램은 기존의 인구구조 및 도시조직을 유지하는 수복형 정비사업을 원칙으로 함.
  ·정비 구역에는 주민 대표기관을 설립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함.
  ·정비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은 베를린 시정부와 연방정부(BUND), 유럽연합(EU)에서 확보해 최대한 지원함.

- 주거지 정비 프로그램 대상은 저소득층이 밀집해 살고 있는 낙후된 주거지와 준공업지역의 유휴부지 등임.
  ·정비구역은 총 22개며, 전체 면적은 약 810만㎡임.
  ·개별 정비구역은 약 30만~50만㎡로 자치구 내 생활권 단위로 지정함.

리모델링하지 않은 노후주택(왼쪽)과 리모델링한 건물(오른쪽)

생활권 단위의 노후주거지 정비

- 정비사업 전에는 인구감소율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00년 이후에는 인구증가율이 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정비구역과 주변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전체 정비대상의 과반수인 4만 1000여 호의 주택이 리모델링돼 정비가 완료됐음.
  ·도심 주거지와 준공업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이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 젊은 부부 계층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 교육 및 여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임.
  ·베를린市는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않아 향후 정비사업 예산의 추가 확보와 민간참여 유도방안을 개발하고 있음.

도심 주거지를 복합용도로 리모델링한 상태

준공업지역을 복합용도로 전환한 수변도시

<해설 및 평가>

- 베를린市는 1980년대 초까지 철거 위주로 정비를 추진해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단조로운 도시경관, 환경문제 등이 제기됐음.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공원 및 학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수복형으로 정비방식을 전환했음.

- 정비구역은 근린 생활권 단위인 30만~50만㎡ 규모로 넓게 지정해 돌출형 개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정비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지원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 후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함.

- 베를린市의 전체 주택 수는 약 188만 호에 달하며, 이 중 43%에 해당하는 약 80만 호가 지은 지 6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임. 특히 10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수가 전체 주택 수의 1/4에 해당함.
  ·市는 10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라도 안전상의 문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함. 이는 주택 신축 후 2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 대상인 노후불량주택으로 분류하는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현상임.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개별사업 단위로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함.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정비 예정구역을 개별사업 단위로 지정하고 있어 기반시설의 과부화 및 경관 훼손 등 주변지역에 부작용이 발생함.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주택 재개발사업 부문과 주택 재건축사업 부문으로 나눠 수립해 계획의 정합성 유지 및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가 어려운 상태임.

- 양호한 주택지와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이 동시에 소멸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은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반시설 및 주택상태가 매우 양호한 단독주택 지역을 철거 대상으로 지정하는 부작용이 나타남.
  ·노후한 단독 주택지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대부분 중·저소득층의 주거공간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 이러한 주택이 철거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멸될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 민간 위주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문제점이 발생함.
  ·정비사업이 민간주도 방식으로 추진돼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층·고밀도로 개발되는 반면, 정작 필요한 기반시설은 최소화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설치돼 주변지역에 과부화를 초래함.

<벤치마킹 시행방안>

- 정비 예정구역은 근린생활권 단위로 지정하며,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 등으로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함.

- 노후주거지 정비는 공공부문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특히, 근린생활권 단위의 정비계획 수립,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설치 등은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노후주택지를 철거대상에서 관리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현재의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아파트 개발을 전제로 수립돼 있어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주택을 관리하고 수선하기보다는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노후화를 조장하는 문화가 형성됨.
  ·주택의 고유 기능은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거주공간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도시가 건전하게 발전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주택이 더 이상 투자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함.

<벤치마킹 기대효과>

- 철거를 통한 아파트 건설 중심의 획일적인 정비수법에서 벗어나 수선과 보존 등 다양한 정비정책을 개발한다면 향후 인구 및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다양한 주택유형을 형성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임.

/김인희 도시계획부 연구위원(ihkim@sdi.re.kr)

도시경영 · 경제

1. 혁신기업 지원사업 개선계획 마련 (베를린)

○ 베를린市는 혁신기업 지원사업을 개선하기로 하고, 연구·혁신·기술을 위한 프로그램(ProFIT) 개정을 위해 市 경제·기술·여성부와 베를린 투자은행이 공동 가이드라인과 집행지침을 마련함.

– 경제·기술·여성부 장관은 “ProFIT 가이드라인과 집행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베를린은 최적의 혁신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베를린 경제 번영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이 좀더 차별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 중요 혁신내용은 지원 상한선을 확대한 것임. 보조금은 기존 30만 유로(약 3억 6000만 원)에서 40만 유로(약 4억 8000만 원)까지 확대했고, 상환할 능력이 있는 기업에는 기존 50만 유로(약 6억 원)에서 100만 유로(약 12억 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대함.

·성장 프로젝트와 시장 주도 프로젝트는 저리 대출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비용의 80%까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일률적으로 10%였던 보너스 후원 조항에 소기업을 위한 조항이 새로 포함됨.

·최대 25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중기업이면서 연 매출이 5000만 유로(약 600억 원) 이하인 경우는 기존 보너스 후원 조항을 적용함.

·50명 이하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면서 연 매출이 1000만 유로(약 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을 위해 20%까지 보너스 후원을 두 배 늘림.

– 프로젝트 제안서와 신청서 및 모든 관련 서류를 웹사이트에서 제출할 수 있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스톱으로 후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집행은 베를린 투자은행이 맡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8/13/83395/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이 사업은, 혁신주도형 경제시스템 아래에서 역량을 갖추고는 있으나 사업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판단됨.

- 도입 초기이므로 프로그램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나, 프로그램 운용에 있어 성장 프로젝트 및 시장 주도 프로젝트에 정책 초점을 두는 점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됨.
  ·다만, 상환 가능한 지원과 동시에 운용되는 보조금 지원은 실효성이나 사업관리의 불확실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과도한 자금지원이 자칫 기업의 시장퇴출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한 지원규모 설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정병순 도시경영부 연구위원(jbs66@sdi.re.kr)

2. 거리환경감시단(SCOUT) 발족 (뉴욕)

○ 뉴욕시장은 뉴욕市 거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스카우트'(SCOUT: The Street Conditions Observation Unit)라는 거리환경감시단을 발족함.

- 감시단은 한 달에 한 번 뉴욕市의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며 거리의 낙서, 하수관 막힘 여부, 맨홀 상태, 버스정류장 손상 여부 등을 무선 휴대단말기 겸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고함.

- 뉴욕시장은, 좀더 쾌적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곳을 적극 찾아다니며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시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감시단 발족 의의를 강조함.
  ·감시단 활동의 주 목적이 문제점 발견을 통해 더 살기 좋은 뉴욕市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자를 처벌하지는 않겠다고 뉴욕시장이 밝힘.

(www.amny.com/news/politics/ny-bc-ny--mayoronwheels0816aug16,0,2949408.story)

3. 수도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일본)

○ 일본 수도권의 8개 都·縣·市(도쿄都, 사이타마縣, 지바縣, 가나가와縣, 요코하마市, 가와사키市, 지바市, 사이타마市)는 민관협동시행위원회를 설치하고 '21세기 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도쿄만은 수도권의 재산으로서 물류를 통해 산업이나 생활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함. 도쿄만을 축으로 한 수도권의 활성화를 목표로, 8개 都·縣·市는 다음과 같은 5개 프로젝트를 계획함.

·도쿄만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도쿄만이나 해상교통 이해 도모와 수도권의 지역자원이나 출범 프로젝트 홍보를 목적으로 민관협동 개발사업 전개

·도쿄만 선상 엔터테인먼트: 도쿄만을 무대로 여객선 운항 실험

·광역 유람선 관광: 도쿄만의 해상교통을 이용한 수도권 광역 뱃놀이 루트 개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일본 정부의 'Visit Japan' 캠페인과 연계해 해외 관광객 유치

·수도권 eight, eight: 수도권 8개 都·縣·市 홍보

한줄 뉴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1893년부터 2007년까지의 코파카바나 변천사를 소개하는 코파카바나 해변 전시회 개최

- 市 시민보호국, 건물 내 사고 예방을 위해 건물 경비원, 아파트 주민 등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교육 실시

- 노숙자 자립을 위해 노숙자 대상으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월 100헤알(약 4만 7000원)의 보조금 지급

·노숙자가 市 소유 호텔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협동, 제휴, 공유라는 뜻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 커뮤니케이션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임. 단순한 정보 교류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컬래버레이션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를 설득하는 것임.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이나 국가 간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감.

(www.giac.or.jp/to/funade21)

4. 공공예산 수립에 시민참여 활성화 (브라질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 공공예산 수립에 시민참여가 늘고 있음. 市는 2007년 현재 약 1만 9698건의 시민 제안을 접수했는데, 이는 2006년에 비해 31.3% 증가한 것임.

- 市는 각 예산법 시행을 위해 10회의 공청회를 실시함.
  ·시민이 퇴근 후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공청회는 언제나 저녁시간에 열며 장소도 학교 등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정함.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2007년에는 쿠리치바 시장이 직접 10개 구역을 돌며 시민 예산 참여제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공청회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음.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0642)

5.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정보 제공 확대 (베를린)

○ 베를린市는 평생교육 데이터뱅크(www.wdb-berlin.de)에 새로운 정보도서관을 개설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실시함.

- '평생학습'이라는 모토 아래 이용자가 직업교육 및 학업, 평생교육, 후원, 역량 등 부문별로 정리된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함.
  ·특히 후원 부문에서 조언을 구하는 요구가 높음.

-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영역에서 점점 증대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며, 더욱 발전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를 기업가, 근로자, 구직자, 고등학생, 대학생 등으로 구분함.

- 베를린 평생교육 데이터뱅크는 베를린市 통합·노동·사회부와 유럽 사회기금의 재정으로 운영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8/10/83362/index.html)

6. 4대 금융지원서비스 특구 건설 계획 (북경)

○ 2007년 8월 30일 북경市는 4대 금융지원서비스 특구를 차오양 찐잔(朝阳金盏), 하이디엔 다오상후(海淀稻香湖), 통저우 신청(通州新城), 서성區 더성과기원(西城德胜科技园) 지역에 건설하기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도 금융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함.

- 市가 최근 발표한 '수도지역 금융지원서비스 체계 건설 의견'을 통해 4개 지역에 금융서비스 특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발전계획을 세워 지역특색에 따라 전문화된 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차오양 찐잔 지역은 국제금융기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유치에 특화함.
  ·하이디엔 다오상후 지역에는 중앙 금융관리감독 부문과 중국 대형 금융기관에 특화된 금융서비스 특구를 설치함.
  ·통저우 신청 지역에는 중국 내 금융기관과 중국 내·외 대기업 이전 지원서비스에 특화한 금융서비스 특구를 설치함.

(www.bjgov.gov.cn/zfzx/zwxx/jjtz/t814046.htm)

한줄 뉴스

<도쿄>

- 주민 간 교류 폭을 넓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저력 회복사업' 공모
  ·지역 내 과제를 해결하는 선도적인 사업에 100만 엔(약 820만 원) 상한으로 보조금 지급

- 도시마區, 지역 만들기에 기여하는 구민 동아리 활동에 사업비 50% 이내로 보조금 차등 지급

- 주오區, 2007년 9월 3일 어린이와 자녀양육 가정을 지원하는 거점시설로 어린이가정지원센터 개설

- 스기나미區, 쓰레기 감량을 위해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비닐봉지 유료화 조례안을 마련하고 2008년 시행할 계획
  ·슈퍼마켓과 편의점은 비닐봉지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장바구니 사용비율을 60% 이상 끌어올려야

복 지 · 문 화

7. 다문화주의 프로젝트 지원 계획 (베를린)

○ 베를린市 내각사무처 문화담당이 2007년 8월 15일 다문화주의 프로젝트 지원 계획을 발표함.

- 베를린市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현 예산의 예비비로 충당함.

- 베를린市는 다문화 도시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다문화 간의 접촉을 계속 후원하고자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지원함.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 표현하는 프로젝트
  ·지배 문화에 포함되지 않고, 불충분하더라도 구성요소와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예술적인 형태를 갖춘 프로젝트
  ·서로 다른 문화 사이를 매개하는 내용을 다룬 프로젝트

(www.kultur.berlin.de)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8/15/83538/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독일의 이주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이웃 국가인 프랑스에 비해 명쾌하지 않은 점이 있었음. 그러나 베를린市의 다문화 프로젝트 후원 정책이 다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배려라는 유럽연합의 정책과 일치함에 따라, 그동안 독일이 이민족과 이문화를 보이지 않게 차별하는 국가라는 편견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과거 주도문화와 종속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차별적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문화의 공존과 합침, 즉 다문화 사이의 매개 창출과 평등한 관계를 위한 시도를 통해 베를린市는 다문화 도시라는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서울시는 현재 글로벌 도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세계 도시로서의 핵심 목표는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이주 외국인의 소규모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부터 출발해 다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배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홍석기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8. 온라인 '걷기교실' (런던)

○ 런던교통공사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걷기 편한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운동전문가가 안전한 걷기운동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걷기교실'을 개설함.

- 걷기교실은 환경도 살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걷기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걷기교실을 담당하는 운동전문가는 잘 맞지 않는 신발과 자세, 지나치게 무거운 가방 때문에 걷다가 다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 교통공사는 많은 시민이 건강을 위해 체육관에 돈을 주고 회원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무료로 쉽게 할 수 있는 올바른 걷기운동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걷기교실은 건강과 환경뿐 아니라 가정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교통공사 홈페이지의 걷기 코너에는 '걷기교실'뿐 아니라 35분가량 소요되는 다양한 산책 경로를 지도와 함께 제공함.

(news.bbc.co.uk/1/hi/england/london/6935123.stm)
(www.tfl.gov.uk/tfl/gettingaround/keeping-fit-in-london/downloads/jamie-bairds-fitness-tips.pdf)

9. 가정폭력 피해아동 보호 프로그램 실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사회복지국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따뜻한 패밀리 프로그램'을 실시함.

- 심리학자와 사회복지사가 보건소와 주민협회, 교회, 클럽, 거리 등에서 팸플릿을 배부하고 있음.
  ·현재 '따뜻한 패밀리 프로그램'에 가입된 가구 수는 총 117가구며, 독신 남녀도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 가정폭력 피해아동을 돌볼 수 있음.

- 시정부는 아동 1명당 월 350헤알(약 16만 6000원)에서 600헤알(약 28만 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함.

(www.rio.rj.gov.br)

10. 심각한 노숙자 문제 해결 위해 보조금 지원 (런던)

○ '런던자치구위원회'(London Councils)는 현재 심각한 런던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기금을 조성해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임.

- 보조금은 약 120억 원에 이르며, 런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6만 1000명의 노숙자가 임시숙소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런던자치구위원회는, 현재 런던의 노숙자 비율이 영국 전체의 68%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함.

- 런던자치구위원회는 임시 숙소에 사는 노숙자뿐 아니라 거리 노숙자, 노숙자가 될 상황에 있는 사람, 교도소에서 출감 예정인 사람도 도울 예정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13개의 단체를 지정했고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노숙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단지 노숙자에게 일방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628032/Whitehall-names-Respect-Areas)

11. '템스 페스티벌' 개최 (런던)

○ 런던市는 9월 15~16일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타워브리지까지 강변을 따라 제10회 '템스 페스티벌'(Thames Festival)을 개최함.

- 2006년에 약 65만 명의 사람이 페스티벌에 참가했는데, 2007년에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관계자가 말함.

- 보행자 전용 다리 축제, 가장 행렬, 영화 상영, 야외 곡예공연 및 탱고공연, 야간 카니발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강변 곳곳에서 펼쳐짐.
  ·야외에서 진행된 30m 높이에서의 곡예는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였음.

-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런던시장의 협조로 '템스 페스티벌 재단'(Thames Festival Trust)에서 주관함.

(www.london.gov.uk/londoner/07sep/p3a.jsp?nav=on)

12.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실행전략 공모 (베를린)

○ 베를린市 경제·기술·여성부는 유럽 사회기금(ESF)의 지원 아래 ESF 후원기간(2007~2013년)에 진행할 '여성의 직업능력과 상담' 프로그램의 실행전략을 공모함.

- 사업자 대상 1차 상담 프로그램뿐 아니라 IT, 서비스, 건강, 양육 부문 능력을 배양하는 실행전략을 후원함.
  ·후원 목적은 관련 사업자와 기업 수를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IT, 서비스, 건강, 양육 부문에서 여성의 근로능력은 물론 여성의 노동시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市는 실행전략 추진비용 중 50%까지 후원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8/21/83818/index.html)

13. ‘긴 박물관의 밤’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07년 8월 25일 오후 6시부터 26일 새벽 2시까지 ‘긴 박물관의 밤’ 행사의 10주년 기념행사를 엶.

- 베를린市 100여 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이 행사에 참여함.
  ·관람객은 행사 티켓 하나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으며 전시뿐 아니라 콘서트 등 부대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음. 市는 이 행사를 통해 박물관의 문턱을 낮춰 관객을 적극 유인할 수 있었음.
  ·티켓은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12유로(약 7200원)이고, 행사당일 구매하면 15유로(약 9000원)였음.

- 시청에서는 ‘대화 중인 베를린과 파리’ 사진전이 열렸음. 시민은 두 도시에서 출품한 사진을 보면서 샹송에서 재즈에 이르기까지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짐.

- 2007년이, 베를린市가 파리市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지 20년이 되는 해임을 기념해 파리市를 파트너 도시로서 개막식에 초대함.

(www.lange-nacht-der-mussen.de)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8/22/83873/index.html)

14. ‘복지·보건의 신전개 2007’ 수립 (도쿄)

○ 도쿄都는 2006년 2월에 복지·보건 시책의 기본방침을 담은 ‘복지·건강도시 도쿄 비전’을 수립한 바 있음. 2007년에는 복지·보건·의료를 둘러싼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비전의 기본방침을 더욱 발전시키고자‘도쿄 복지·보건의 신전개 2007’을 수립함.

- 2007년에 진행할 26개의 중점 프로젝트를 열거하고 분야별 중기 대응방안을 제시함. 각 분야의 주된 사업은 다음과 같음.
  ·육아가정 분야: 초등·중학생의 의료비 경감, 사업장 내 탁아시설 지원, 인정(認定) 어린이집 보조, 아동상담소 기능 강화

·고령자 분야: 늘어나는 치매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시책 전개
·장애인 분야: 임금 개선을 위한 작업장 경영 네트워크 지원
·생활복지 분야: 다중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상담 및 대출
·보건·의료 분야: 자살 방지를 위한 '게이트 키퍼' 양성 등 자살 종합대책과 의료인재 확보대책 실시
·건강 안전 분야: 건강 위기 센터 정비, 에이즈 종합대책 시행
(www.fukushihoken.metro.tokyo.jp/kikaku/news/presskikaku070119.html)

도 시 환 경

15. 공공부문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국 서던캘리포니아州)

○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서던캘리포니아州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나 시내버스, 쓰레기차 등의 공공부문 차량이나 市에서 지원을 받는 차량을 천연가스나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바꿔 대기오염을 줄이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주로 오래된 통학버스나 디젤차가 스모그나 매연 배출 등으로 대기오염을 악화시킴. 州는 법안 통과 후 압축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을 6000여 대 구입하고 통학버스는 10% 정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함.
  ·미국 우편서비스 차량 같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차량이나 Fedex 같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차량은 제외됨.

- 서던캘리포니아州 환경단체들은,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이 법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www.latimes.com/news/science/environment/la-me-leet22aug22,1,3290874.story?coll=la-news-environment)

16. ‘동물 애호관리 추진계획’ 수립 (도쿄)

○ 애완동물은 생활에 활력과 기쁨을 주지만 주인 잃은 애완동물은 거리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킴. 도쿄都는 ‘사람과 동물의 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도쿄 동물 애호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함.

– ‘가족의 일원에서 지역의 일원으로’라는 모토 아래, 애완동물이 지역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지는 것을 목표로 함.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간 5개의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실시됨.

·주인의 사회적 책임: 애완동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그런(dog run)* 시설 이용 제한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애완동물 숍의 법령 준수 실태 조사 및 감독

·주인 없는 애완동물 대책 추진

·버려진 후 거리에서 죽는 애완동물 수를 줄이기 위해 애완동물 양도체계 수립

·애완동물에게서 전염병이 감염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도민과 애완동물의 안전 확보

* 도그런(dog run): 공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실외에서 개는 항상 끈에 묶여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 도그런은 이러한 개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임. 도그런은 울타리가 쳐져 있으며, 개에게 먹일 물과 배설물 처리용품이 비치돼 있음. 개 주인을 위한 쉼터도 마련돼 있음.
(www.koho.metro.tokyo.jp/koho/2007/06/dobutuai.htm)

한줄 뉴스

<브라질 쿠리치바市>

– 모든 상점이 24시간 영업하는 관광명소인 ‘24시간 거리’ 활성화 추진

·1991년에 42개 상점이 개장해 24시간 영업했으나 현재 15개 상점이 밤 11시까지만 영업할 정도로 침체돼 있어

– 자동차 전용차로 10개와 버스 전용차로 1개, 지하철역 8개 건설 등 최대의 도시 변화 프로젝트인 ‘녹색 라인’의 정보 제공 웹사이트 신설

·웹사이트에서 공사 사진 및 영상, 일지, 진행상황 등을 볼 수 있어

17. 하수처리 신기술 실용화 실험 (일본 가고시마縣)

○ 일본 가고시마縣은 기리시마市 고쿠부 하야토(國分集人) 클린센터에서 2007년 8월 도시 하수의 새로운 처리기술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실증실험을 실시함.

- 수처리 전문기관인 산키(三機) 공업, 에바라(荏原) 환경엔지니어링, 토목연구소, 조수촉진센터,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가 공동으로 2006년부터 개발한 '무폭기(曝氣)·에너지 절약형' 기술은 차세대 수자원 순환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 이 기술은 호기성(好氣性) 미생물을 고정시킨 스펀지를 반응기에 부착하고, 혐기성(嫌氣性) 미생물로 처리한 하수를 반응기에 흘려보내는 방식임.
  ·기존 시설과 달리 큰 송풍기가 필요 없고 에너지 소비량과 잉여 슬러지도 각각 70% 삭감할 수 있음.

- 2009년 3월까지 처리수가 배수기준에 적합한지, 설계대로 가동되는지 등을 확인해 최종 실용화를 결정할 예정임.

(요미우리신문, 2007. 8. 28)

18. 쓰레기 처리장에 환경감시측정시스템 설치 계획 (북경)

○ 북경市 시정관리위원회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2007년 말까지 환경감시측정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함.

- 중국 최초로 도입하는, 쓰레기 처리장에서의 환경오염 감시시스템 설치에 총 903만 위안(약 113억 원)이 투자됨.

- 환경오염 감시 측정대상은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이며, 미세먼지, 황화수소, 메탄가스, 암모니아 등의 농도를 측정함.

(www.bjgov.gov.cn/zfzx/zwxx/jjtz/t812464.htm)

도 시 교 통

19. 도심 무료 자전거 타기 축제 개최 (런던)

○ 런던市는 2007년 9월 23일 런던을 상징하는 명소를 자전거를 타며 즐길 수 있는 '도심 자전거 타기 축제'(Hovis London Freewheel Festival)를 개최함.

- 세인트폴 대성당, 런던아이, 웨스트민스터 성당, 국회의사당, 버킹엄 궁전, 더 몰(The Mall) 등 명소를 두루 둘러볼 수 있으며, 총 14km 구간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해 자전거 타기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런던市는 2007년 7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뚜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의 런던 출발지점 부분 개최를 축하하고, 자전거 인구 저변을 확대하고자 이번 축제를 기획함.

- 시민이 각자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해 도심으로 모여 행사에 참가하고 다시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
  ·자전거를 타지 않고 집에 놔두는 런던 시민의 40%를 주요 대상으로 잡고 이번 기회에 거리에서 자전거 타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임.

- 런던市 6개 자치구에 설치된 무료 자전거 타기 출발점에서 공동 출발하며 도심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옴.
  ·출발점 및 반환점에는 자전거 수리시설과 음료수 가판대를 운영함.
  ·도심의 세인트 제임스 공원에서는 참가자와 가족 및 친구 등이 소풍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산악자전거 운전 시범행사와 자전거 체조, 서커스 등의 행사를 마련함.

(www.londonfreewheel.com)

(www.london.gov.uk/londoner/07sep/p12a.jsp?nav=around)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시교통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강조되고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학생뿐 아니라 직장인과 주부 등이 동참해야 기반이 조성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학창시절에 자전거를 이용한 경험이 적다는 것임.

- 런던의 무료 자전거 타기 축제는 직접 자전거 타기를 체험함으로써 자전거 잠재 이용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서울시도 양천구나 강남구 등에서 이미 자전거 대여 제도 도입과 대대적인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현 시점에서 런던市와 같은 무료 자전거 타기 축제를 기획한다면 정책 홍보는 물론 시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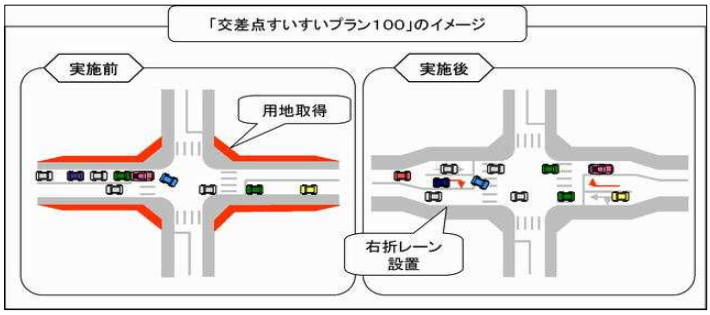
/이광훈 도시교통부 선임연구위원(kwlee@sdi.re.kr)

20. 제2차 '교차점 휙휙 플랜' 수립 (도쿄)

○ 도쿄都는 비교적 단기간에 소액 투자로 효과를 보는 국지적인 교통정체 대책 사업으로 '교차점 휙휙 플랜 100'을 실시해 왔는데, 계속되는 정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 제2차 '교차점 휙휙 플랜'을 수립함.

- 교차로에서의 정체 완화를 위해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쿄都의 도시 재생을 실현하는 데 있어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음.

- 도내 100개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간 총 640억 엔(약 5200억 원)을 투자하고, 정체 완화를 통해 연간 74억 엔(약 6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거리환경 개선효과를 기대함.



교차점 휙휙 플랜의 이미지

교차로 개선사업 후 도로 사정 변화

(www.kensetsu.metro.tokyo.jp/douro/kanri/k_suisui/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서울시의 경우 교차로 소통개선 사업은 그동안 TSM 사업(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시행하는 교통개선 사업)으로 대처해 왔으나 개선의 한계가 있었음.

- 도쿄都의 교차점 휙휙 플랜은 서울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회전을 위한 추가용지 획득을 통해 개선하기에는 지하철역 출입구를 이동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일반적으로 지하철역 출입구는 도로변에 붙어 있음.

- 서울시 도로는 대부분 다차로 광폭원 도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차로에서 1차로를 축소해 우회전 차로를 확보함으로써 도쿄都 교차점 휙휙 플랜과 같은 성과를 모색해야 할 것임.

/이광훈 도시교통부 선임연구위원(kwlee@sdi.re.kr)

21. 수로주택 건설계획 마련 (영국 글래스고市)

○ 영국 글래스고(Glasgow)市와 영국 물길협회(British Waterways)는 글래스고 매리힐 수로지역에 800호의 수로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함.

- 포스·클라이드(Forth & Clyde) 지역에 있는 400만 ㎡ 넓이의 수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20년 장기 프로젝트임.
  ·역사적인 지역인 메리힐의 경관과 어우러져 2층 및 5층 아파트, 테라스 주택, 듀플렉스(duplex: 두 세대용) 타입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임.

- 수로주택은 다양한 소득과 계층의 민영·공공 주택으로 혼합 구성됨.
  ·수로지역의 도시재생과 함께 물과 연계된 녹지공간 개발을 통한 수로지역의 활성화는 글래스고市의 도시부활 정책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www.planningresource.co.uk/bulletins/Planning-Resource-Daily-Bulletin/News/733720/Canal-homes-plan-published)

한줄 뉴스

<북경>

- 연간 생산량 20만 대 규모의 북경 현대자동차 엔진 제2공장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북경 현대자동차는 북경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합작법인으로, 북경市의 전략적 지역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지원받고 있어

- 市 노동보호과학연구소, 중국 내에서 최초로 2007년 말까지 자동차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 제한치 및 측정방안을 마련할 계획

방 재 · 안 전

22. 청색 방범 패트롤카 운영 (도쿄)

○ 도쿄都에서는 '자기 마을은 스스로 지키자.'라는 의식이 확대되면서 지역 주민이나 민간단체, 행정기관이 청색 방범 패트롤카를 운영함.

- 청색 경광등을 부착한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확인이 쉽고 범죄 억제효과가 높아 주민이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청색 방범 패트롤카

·통학로나 공원 등에서 활동하므로 아이들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동차의 기동성을 살려 광범위한 지역에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우천 시에도 활동할 수 있음.

- 都가 필요경비의 50% 이내로 보조하며 차량 한 대당 25만 엔(약 200만 원)까지 지원함.

·대상은 방범협회, 반상회 및 자치회, 상점회, 지역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및 NPO 법인 등임.

(www.koho.metro.tokyo.jp/koho/2007/08/aopat.htm)

한줄 뉴스

- 미국 서던캘리포니아州 샌버나디노 카운티, 건물에 태양광이나 풍력시스템 설치 시 건축허가비 면제나 건축 허가절차 단축 등 혜택 제공

-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市, 시립학교의 영양가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약 600만 헤알(약 28억 5000만 원) 투자 계획

·식품 영양군을 참조할 수 있도록 모든 시립학교 및 유치원 등에 '식품 피라미드' 안내책자 배부

- 런던市, 템스강을 지켜갈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7년 8월 한 달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템스강 낚시 교실' 개최